

# 직관 展

## 直觀, Intuition

### I. 전시 소개

#### 1. 전시개요

제 목 : 직관 直觀 Intuition 展

일 시 : 2010. 07. 21 - 08. 22

장 소 : 학교재갤러리 전관

참여작가 : 김기철, 김잔디, 류호열, 문형민, 박지현, 서상익, 서지형, 성상은, 유현경, 이경하, 이은우, 이제, 이주형, 이진주, 임자혁, 한계륜, 홍범 (총 17명)

참여작품 : 약 90여 점

전시문의 : 02) 739-4937~8

전시담당자 : 성가영

(웹하드 ID\_hakgojaeart, PW\_guest)

#### 2. 전시내용

사실과 진실을 알고,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요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얻지 못하는 인식을 얻을 수 있는 힘으로 '직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학이나 일상적 관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추상적 인식과 달리 직관은 상호 연관되어 있는 세계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의 방법론이면서 직접적인 사실인식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는 작가들이 작업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작업의 담론을 짓고, 행위를 할 때 취하는 결단, 관습, 태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 전시는 예술품을 매개로 작가와 작업사이, 작업과 관객 사이에서 각각 직관이 작동하는 순간들을 만나면서, 인식의 다양한 층위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 3. 전시의 맥

##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 직관

### 통합적 인식의 방법론

세상이 복잡해졌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도 복잡해졌다. 넘치는 정보와 논리, 관계들이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진실 혹은 실체에 다가서는 길은 더 멀고 험해져만 간다. 이성과 논리가 효과적으로 제공해주지 못하는 ‘올바른 판단’에 대한 갈증과 거기서 야기되는 불안 때문인지 요즘 ‘직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상으로부터 어떤 근본적인 것을 단숨에 확실하게 파악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사고 활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직관이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학자들이 동서양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동양인은 직관적인 반면 서양인은 논리적이라는 이야기다. 동양인은 우뇌형이고 서양인은 좌뇌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서양적 사고방식에 압도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동양의 현실이고 여전히 서양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그러하기에 논리로 무장한 과편화된 서구적 사유방식이 가져온 부작용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동양적이라고 할 수 있을 통합적이고 순환적인 사고방식과 실천의 자세로 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흐른 것 같다. 동양 대 서양, 이성 대 감정 등으로 표면화되었던 분열 또는 차이가 조화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모색해나가고 있는 셈이다.

직관은 대상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데 꽤 유용하다. 그리고 ‘합리성’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요즘에는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으로 ‘직관’에 주목하는 시각도 눈에 띈다. 스마트 폰이 급성장하면서 직관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변을 부지런히 둘러보면, 확실히 세상이 예전보다 좀 더 강렬하게 ‘직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다.

### 예술의 본질에 이르게 하는 힘, 직관

그래서 ‘직관’을 화두로 하여 전시를 꾸려왔다. 생각해보면 예술작품이야말로, 지극히 직관적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직관이 창작의 제1질료임과 동시에 제1동인이라고 말한다. 작품 발상의 그 순간에 직관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관은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순간에도 작동하여 대상이나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을 끌어낸다. 많은 철학자들이 ‘직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베르그송은 대상의 실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습관이나 관념 등 지성의 작용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실재를 가리는 베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베일을 걷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술가의 직관이며, 이는 대상에 대한 심적 동요를 불러일으켜 더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사물을 보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콘라드 피들러는 “예술적 재능의 본질은 직관적 파악 능력을 가지고, 혹은 그런 능력을 위해 태어난다는 점에 있다. 예술가에게 직관은 그밖에 있는 어떤 외적 목적에 복무하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직관이다”라며 예술의 본질을 직관 능력에서 찾았다.

한스 제들마이어도 “체험한 것은 외적인 것, 대상적인 것,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작품일수록 단 수분만 보는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공통된 경험을 주는 것이다. 공통된 경험을 안겨주는

직관적 성격이 작품의 근원적인 것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고 말하면서 예술작품의 근원성을 직관적 성격에서 찾았다. 이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예술과 직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는 것이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작업과 작가 사이, 작업과 관객 사이에서  
직관이 작동하는 순간을 만난다.

이번 전시를 함께한 열일곱 명의 작가들은 작업의 주제의식 뿐 아니라 작업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면모를 보인다. 직관이 작동한 순간이 모두 다른 셈이다. 어떤 작가는 직관에 기반한 판단을 믿기도 하고 또 다른 작가는 이를 불신한다. 어떤 작가는 작업의 과정을 직관에 의해 전개시켜 나가고 어떤 작가는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해 나간다. 또 어떤 작가는 그의 작품에 대한 관람객의 직관적 판단과 감정이입을 독려하지만 어떤 작가는 직관에 의지해 작품을 바라보았을 때 작가의 작업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판단에 다다를 수도 있음을, 그리하여 치명적인 오류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전시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관을 발휘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전시는 예술을 매개로, 세상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직관의 실체를 파악해 보자는 일종의 제안이다. 나아가 직관을 화두 삼아 예술가가 작업에 임하는 자세,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자세에 대해 되짚어 보면서 작업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관계와 그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바람도 있다. 이는 결국, 예술의 존재의미에 대한 재고와 닿아 있는 셈이다.

## II. 작가 소개

### 김기철

김기철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애틀에서 오디오 프리덕션을 칼아트에서는 순수미술과 인티그레이티드 미디어를 전공하였다. 그는 “소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일관된 작업을 통해 소리를 공간화 시킨다. 그에게 소리를 본다는 것은 일종의 구도를 의미한다. 때문에 작품의 주제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리의 시각화를 꾀한다. 이번 작업에는 그가 조각가로서 비교적 초기에 시도했던 소리의 감성적 접근과 음향심리학에 기반을 둔 작업을 보여준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소리라는 것은 공간과 관계가 없고 시간하고만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한다. 벽과 바닥에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원통 모양으로 놓여있는 기하학적 상자들의 표면에는 스피커가 부착되어 있다. 관객이 작품 앞에 가까이 가면 센서에 의해 새로운 빗소리들이 공간 전체를 가득 메운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실내 공간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관객은 실제 비가 내리고 있는 곳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소리 그 자체를 감상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 김잔디

김잔디는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7년 런던 첼시예술대학에서 MA Fine Arts를 졸업했다. 한남, 동작, 면목 등 주로 구체적인 장소와 관계된 특별한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설치작업을 했으나 2006년 런던 유학 이후로 보편적인 장소, 집의 근원적 성격에 대해 주로 페인팅으로 풀어내고 있다. 사진 위에 유화로 덧그린 「Uncanny House」 시리즈는 집에 대한 환상이 가진 모순에 대해 이야기한다. 드로잉 속의 집들은 소박하고 매혹적이지만 벽을 장악한 식물 등으로 인해 출입은 봉쇄되거나 꺼려진다. 이 집들은 회귀를 소망하나 거부되고 마는 자궁으로의 귀소본능, 그리고 노스텔지어가 가진 근원적인 불가능에 대한 상징이다.

### 류호열

류호열은 1971년 서울 출생으로 중앙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테마 속에서 사진, 비디오,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의 단순한 영상 이미지는 실제의 사진과 컴퓨터 애니메이션,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아우른다. 비현실의 현실화라는 실체적인 의미보다 진정한 의미의 “탈개념화”가 작업의 주된 목적을 이룬다.

### 문형민

문형민은 Art Center College of Design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후,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에서 같은 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하였다. 화려한 색채와 디자인적인 감각이 우선 눈에 띄는 그의 작업들은 형식적 완성도를 지향하면서도 단순히 조형적 차원이나 개인적 취향을 넘어서는 사회적 차원을 우회적으로 담아낸다. 치밀하고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해 나가는 그의 작업방식은 불투명한 개인적 감각이나 경험을 투명한 기호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번 그의 출품작, 「by numbers series」는 잡지에서 보이는 특수성과 보편성,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상징한다. **NEW**

*YORKER, Art in America, W* 지의 기사에서 추출한 단어를 색상으로 지정하여 격자무늬로 나타내는 평면작업으로 표면은 매우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10개 정도의 색으로, 이는 화려해 보이는 미술이라는 것이 몇 개의 상투적인 단어로 규정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 박지현

박지현은 1970년 서울출생으로 홍익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는 '향 드로잉' 이라는 독특한 평면 이미지를 보여준다. 작가에게 있어 '향' 이란 재료는 어느 대상을 향한 염원이나 기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상실현을 위한 하나의 매개체의 구실로서 작용을 한다. 그는 한지종이를 뚫는 향은 종이를 태워 없애버리지만 한편으로는 향으로 태워진 구멍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번 출품작 「구운몽」 은 아홉 폭으로 구성된 이상향, 바로 꿈의 이미지를 향작업으로 형상화 한 작품이다. 작가는 향을 인간의 욕망이나 염원 등 이상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피우는 행위는 그 이상을 태워버리는 것이라 해석한다. 결국 그의 이상향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연기로 사그라지거나 재로 날아가 버리는 잡힐 수 없는 것을 상징한다.

### 서상익

서상익은 1977년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그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직관을 통해 그림의 시작점 잡고, 캔버스 위에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즐긴다. 그의 근작들은 사회적 통념과 외부 요인들이 개인의 공간과 시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주체로서의 개인은 그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부정하며 또 스스로를 소외시켜 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품 「사연 많은 도시」 에서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인물들이 일상의 공간에 배치된다. 플랫폼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인물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모아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는 기존에 자신의 일상에서 대중매체 또는 영화 속 이야기를 끌어와 상상과 일상의 경계를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개인적 이야기의 가능성만을 상상으로 만들어 또 다른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오늘도 채펠린은 날지 못했다」 에 등장하는 비행선 채펠린은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무기로 독일에게는 패전을 상징한다. 그림 속 공중에서 비행 중에 폭파되는 채펠린 호는 비상을 꿈꾸지만 이내 좌절되고 마는 작가의 현실을 형상화한 것이다. 일상의 풍경 안으로 들어와 작가의 감정이 이입된 이 대상물 뒤로는 잠망경이 보인다. 지붕 위의 잠망경은 침잠된 현실에서 오늘도 날지 못 하였지만 다시금 비상을 꿈꾸는 작가의 의지를 표상한다.

### 서지형

서지형은 1978년 서울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작가는 관객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을 구성하는 그 자체인 '기억'에 대한 소중함과 그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유년시절 자신이 가지고 놀던 '고무찰흙' 과 '지우개' 를 재료로 하여 기억 속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지우개라는 것 자체가 존재와 망각의 상징이며, 이러한 재료로 지워지거나 남겨진, 그리고 곧 지워질지 모르는 기억의 영역을 다루기에 재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작가는 마치 아이가 찰흙놀이를 하듯 하는 제작 방식 또한 전문가적 재료를 쓰지 아니하고도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미술은 난해하지만은 않으며 우리 생활 어느 곳에나 존재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말한다.

### 성상은

성상은은 1970년 서울출생으로 홍익대 조소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 School of Visual Arts에서 수학하였다. 작가는 작업을 하는 내내 작위의 행위를 우연이라는 효과에 반쯤은 의지한 채 진행한다. 우연의 효과와 이를 통한 반복적 작업으로 이루어진 모호한 형상을 만들어 내면서 특정 이미지를 넘어서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이미지의 원형을 창조한다. 그녀는 입체와 평면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생물이자 공간이며, 세계를 보여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만의 원형을 보여 주는 새로운 형상을 구축하고 있다. 그녀의 설치작품은 주시하여 보면 동물을 연상시키는 골격 속에 식물의 부분과 같은 형상이 투영되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 유현경

유현경은 1985년 충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서양화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녀는 도발적 상상으로 가득 찬 무의식의 세계를 담아낸다. 사람, 남성, 여성, 공간을 소재로 작업하고 그들이 어떤 관계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그녀만의 서사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강렬하고 필떡이는 필치로 머릿속 상상을 빠른 속도로 풀어놓는 그녀의 작업방식은 무의식 속의 날 것, 망상 그대로를 풀어헤쳐내 현실의 부조리를 토하는 것으로 지극히 '직관적'이다. 정리되지 않은 채 다소 거칠고 산만한 느낌을 주는 유현경의 작업방식은 신화적이거나 외설스러운 것을 표현적인 필치로 다룬다는 점에서 트렌스아방가르드나 신표현주의를 연상케 한다. 그녀의 작품은 숲 속 풍경을 그림으로써 묘하게 현실로부터 유리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극히 일상적이다. 망상을 그렸지만, 일토당토 안한 상상이 아닌 현실의 풍경을 살짝 뒤바꾼 풍경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일상의 모순을 도발적으로 뒤바꾸려는 작가의 의지를 드러낸다.

### 이경하

이경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작가는 공간과 대상을 이질적인 재료로 표현하여 한 화면 안에 배치한다. 대부분의 경우 공간은 목탄으로, 그 위의 대상은 유화로 표현된다. 그녀에게 공간은 영원한 것, 끝없이 확장되는 것, 규정되지 않는 속성의 것이다. 그에 반해, 공간 위에 대상들은 유한한 것, 인공적인 것,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사회 속에서 많은 대립의 순간과 그 순간들 사이에서 삶의 모습은 대립적인 화폭의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는 작품을 바라보는 이의 눈을 통해 중화되는데, 작가는 그 순간이 바로 사람들의 삶이 놓여있는 자리라고 말한다.

### 이은우

이은우는 1982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하였다. 그녀의 작업은 단순한 기하학 도형의 패턴을 그린 것이 아니다. 사회적 사건과 정의에 대한 통계와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을 시각적으로 도출해 내는 그녀는 이미지와 사회적 의미가 압축되고 뒤엉켜 하나의 수학적인 그리드로 변형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감수성과 직관을 투영한다. 그와 동시에 관객들에게는 그리드와 패턴들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유추하게 한다. 그녀는 텍스트로 수치화된 이미지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빨리 들어가 관객들에게 어지럼증을 선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이제

이제는 1979년 서울 출생으로 국민대학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작가는 자신이 유년시절부터 살았던 금호동 주변의 소소한 풍경을 회화에 담아내고 있다. 그녀의 이전 작업들은 밋밋한 색감으로 흐릿하게 묘사되어 일상의 추억을 담은 '찬란한 순간' 처럼 빛에 바랜 듯 묘사되었다. 오래되어 무엇인가가 닳듯이 재현되어 있는 풍경에서 작가의 시선은 자잘한 기억들에 대한 소박한 감정을 따뜻하게 담아내었다. 하지만 이번 출품작에서 보이는 풍경은 다소 변모하였다. 자신이 살았던 추억의 공간이 재개발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사라진 공간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추억까지 사라지고 있음을 그의 화폭에 담아낸다.

## 이주형

이주형은 1974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및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머리카락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뒷 통수를 그리거나 이의 변형된 모습을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머리카락이란 사회라는 집단에서 하나의 개인으로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을 은유하는 매개물이다. 성장을 멈춘 몸에서 머리카락만이 끊임없이 재생되듯이, 활기를 잃은 정신에서 두려움만이 끊임없이 재생되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의 작업은 '미궁'처럼 이러한 상황의 표현에 적극적이거나, 혹은 '포자(홀씨-무성생식을 통해 독립적으로 발아하는)'라는 제목처럼 극복의 희망을 품고 있기도 하다.

## 이진주

이진주는 1980년 부산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동양화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녀의 작업은 옅은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들지만, 자세히 보면 안료 고유의 색이 차분하게 고운 파스텔의 질감이나 벨벳과 비슷한 질감으로 섬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그녀는 현대 주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스토리를 표현한다. 꿈과 경험과 일상들에 대한 은밀한 상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녀의 작업은 일종의 상처받은 소외된 사건과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 같이 끈질기게 남겨진 부정적인 감성을 심리적인 풍경과 수많은 내러티브로 담아낸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동일한 모티브는 단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결에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잠재하고 있는 아니 우리 자신의 일부들. 즉, 분열된 주체나 불안과 불완전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전체의 일부이다.

## 임자혁

임자혁은 1976년 서울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이후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 수학하였다. 작가는 26점의 작품을 통해 일상의 관찰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이미지를 채집하여 마치 시를 써 내려가듯, 직관적인 일상의 단상들을 화폭에 옮겼다. 이렇게 그의 작업은 즉흥적으로 그리고 만든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드로잉이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완성과 미완성, 결론과 과정의 사이에서, 주제와 소재를 한정하지 않는 그녀만의 자유로운 그리기 방식을 볼 수 있다

## 한계륜

한계륜은 1969년 서울에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에서 관화를 전공했고, 중앙대

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이번 참여 작품은 <달에 관하여> 시리즈의 일환이다. 그는 최근 '회화선언'에 대해 '달미에 관한 고찰을 시각화 시키는 방법적 모색'이라 말하고 있다. 이번 출품작 「달을 함정에 빠뜨리다」, 「From Right to Left」, 「달 녹은 물을 푸른 그릇에 받다」에서 또한 그는 시간성을 떠난 초현실적 환상 이미지와 남녀의 관계를 형상화 하는 에로티시즘적인 영상을 선보인다.

### 홍범

홍범은 1970년 서울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School of Visual Art, New York에서 Computer Art(MFA)와 School of Visual Art (New York)에서 Photography, video and related media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MFA) 작가는 공간을 느끼고 이해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적인 기억과 상상력 그리고 직관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다. 어느 한 공간에서 예전의 다른 한 공간의 떠오름은 그의 기억을 통한 서로 다른 공간의 연결이며, 그 속에서 작가의 상상력은 그 공간을 더욱 완전하게 온전한 내면의 공간으로 형상화 된다. 즉, 홍범의 작업은 그가 살면서 경험하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의 내면적인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